

B.NURSE – 2026 **SUMMER** VOL. 29

BE- NURSE TIMES



B.UNIVERSITY NURSING SCIENCE PAPER

간호학과 소개

16기 학생기자 정지승

전공소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간호 전문직 핵심 역량을 갖춘 글로벌 간호리더를 양성한다.

교육목적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건강 회복, 질병 예방,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술,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다학제적인 지식을 응용하여 전인간호를 실천한다.
인구집단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 실무역량을 발휘한다.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대상자의 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팀과의 협업능력을 함양한다.
기독교적 인성을 갖추고 간호전문 리더십을 발휘한다.
최신보건의료기술 및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한다.

프로그램학습성과

- 간호학문과 다양한 학문분야의 지식을 응용한다.
- 임상추론을 통해 간호상황에 적합한 간호를 제공한다.
-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인구집단 건강을 관리한다.
- 법과 윤리에 따라 간호를 수행한다.
- 안전과 질 향상 원리를 적용한다.
- 건강증진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팀과 협력한다.
-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리더십을 개발한다.
- 정보통신과 최신 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한다.

간호학과 동아리소개

17기 학생기자 이은서

1. 손나래 (지도교수님: 양영미)

손나래는 ‘손’과 날개를 뜻하는 순우리말 ‘나래’의 합성어로 손의 날개를 의미한다. 이는 수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고, 더 많은 사람과의 소통을 내포한다. 정기모임을 통해 수어·농문화에 대하여 배우고 청각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농인이 제1언어로 사용하는 수어를 구사하여 임상에서 보다 많은 농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별 없는 간호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BNVP (지도교수님: 안영미)

대길사회복지재단과 MOU를 맺고 매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권 노동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매년 2월, 8월에는 필리핀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3. Veritas (지도교수님: 윤미선)

간호학을 심도있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술동아리로, 매년 학술제를 개최하며 학생들의 학문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연간 학술지 Journal of Baekseok Nursing을 발간한다.

4. B.Nurse times (지도교수님: 김현정)

Baekseok Nurse times 혹은 Be Nurse times 라는 뜻으로 백석대학교 간호학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간호학과 신문 동아리이다. 2012년 가을, 창간이후 매학기 신문을 발간하여 학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신문 제작 외에도 친목 및 봉사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5. 테스트스테론 (지도교수님: 김희정)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건설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 동아리이다. 남학생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학업, 실습, 취업에서의 스트레스 완화를 목표로 한다.

6. 아하브

아하브는 히브리어로 사랑을 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학과 선교부 동아리이다. 아하브에선 주 1회 정기 모임을 통해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학기 중 버스킹, 수련회, 화목우주선 전도 부스, 졸업생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호학과 동아리

"아하브" 집중탐구

17기 학생기자 신하은

본인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하브의 예배지원팀 부팀장, 2학년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아하브의 의미와 구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하브(ahav)는 히브리어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멋지고 사랑스러운 간호학과와 선교부입니다!! 아하브는 악기와 워십, 목소리로 예배드리는 비홀드와 채플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예배지원팀, 그리고 아하브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미디어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아하브에 처음 가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작년 3월, 담임교수님의 추천으로 아하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제가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이 어색했지만,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주어서 잘 적응했습니다. 특히나 아하브를 통해 정말 좋은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어, 인생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귀한 친구들이 제 곁에 생겼습니다ㅎㅎ

활동하면서 어떤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나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서로의 기쁜 일을 축하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보다듬어주는 이런 귀한 모임은 제게 큰 사랑을 주었습니다. 아하브 덕분에 저는 많이 성장했고, 저는 그렇게 현재 어엿한 2학년 선배가 되어 예배지원팀 부팀장이 되었고 귀여운 1학년 후배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 동아리 “아하브” 집중탐구

17기 학생기자 신하은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아무래도 마지막 정기활동 같습니다! 소그룹별로 모여 서로의 상장에 장점을 적어주고, 도넛을 꾸미며 한 학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소감을 말하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아하브 부원들이 너무 귀여웠어요ㅎㅎ 한 학기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아쉬웠지만, 개강하면 다시 목요일 5시마다 정기모임을 하니 그 순간만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하브 가입을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아하브는 누구에게나 상시 열려있는 곳입니다! 앞서 말했듯 아끼는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친구들을 얻는 기회는 아하브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민하지 말고 들어와서 ‘아하브’를 실천해보아요~



BU Nursing Vision Camp 2026

17기 학생기자 이유진

지난 3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BU Nursing Vision Camp(MT)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학교에 모여 버스를 타고 다같이 너리굴 문화마을로 출발했다. 도착 후 강당에서 조를 나누고 서로 서먹했던 학생들이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학과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그 뒤에는 학생회에서 준비한 다양하고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과 재치로 현장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며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해갔다. 저녁 식사 후에는 교수님들도 함께 참여해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2차 레크리에이션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교수님과 1학년 학생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공식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조별로 숙소에서 모여 학우들과 피자과 치킨을 나누어 먹으며 쉬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번 MT에 참여한 간호학과 학생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학기 초부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서 좋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간호학과 구성원으로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백석학원 설립 50주년 전공박람회

17기 학생기자 이유진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백석대학교에서는 백석학원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교내 베데스다공원과 진리관 앞 일대에서 전공박람회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전공박람회는 학부(과)별 전공 체험과 진로 설명을 통해 재학생, 예비수험생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간호학과 학생들은 임신부 체험, D레벨 방호복 체험, 뷰박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진로진학을 위한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체험부스 방문자들이 간호학과와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간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전공박람회에서 간호학과와 관련된 체험을 한 백석대학교 학생은 간호학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전보다 간호학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는 소감을 전했다. 백석대학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각 학부·전공의 교육 역량을 선보이고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해서 이번 전공박람회는 대학의 현재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현장의 목소리로 배우는 간호사의 길

17기 학생기자 오주희

백석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5월 7일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는 아주대학교병원 김미옥, 정망래, 홍혜전 팀장이 직접 방문해 간호사의 실제 업무와 병원 현장에서의 경험, 취업 노하우 등을 전달했다.

특히 아주대학교병원이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병원의료서비스 부문에서 2년 연속 전국 4위를 기록한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병원의 경쟁력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026년 뉴스위크 세계 최고 전문병원 평가에서 암 분야 9위에 선정된 아주대학교병원의 사례를 통해 전문적인 간호 역량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강에 이어서 모의면접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제 면접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답변과 태도를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로부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취업 준비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현장 전문가의 경험을 직접 들으며 간호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취업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대병원 미래인재 간호대학생 진로특강

16기 학생기자 정진희

지난 6월 22일,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25명은 「2026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이대서울병원 이화의료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미래인재 진로 특강'에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예비 간호사들이 최첨단 보건의료 교육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임상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파악하여 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프로그램은 **VR해부학** 시연이었다.

첨단 기기를 활용한 실습에 참여한 재학생은 "VR을 통해 인체 구조를 아주 얇은 단면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각 위치별 상세한 해부학적 설명까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신기하고 유익했다"라며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특강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임상 현장이 요구하는 간호사의 실무 역량과 채용 절차'였다.

현직 실무자들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제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특성과 태도를 깊이 있게 다뤘다. 참여 학생들은 꼼꼼한 채용 절차 안내와 함께 실전 면접 팁까지 전수받으며 취업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한 학생은 '환자와 동료를 존중하며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는 탁월하고 신뢰받는 간호사'라는 이화간호인재상의 비전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다"라며, "내가 목표로 하는 병원의 인재상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얻었다"라고 밝혔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백석대학교 글로벌 프로그램을 만나다

17기 학생기자 오주희

백석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5월 20일,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의료 현장 경험 확대를 위한 '2026 간호학과 글로벌 사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병원 실습의 한계를 넘어 해외의 선진 의료환경과 간호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미국 전방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단기연수, 뉴질랜드 글로벌 현장학습, 광대학교 단기연수 프로그램 소개 및 질의응답,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새롭게 추진되는 '뉴질랜드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업 부담을 덜기 위해 방학 중 운영되며, 현지 요양병원 등에서의 전문적인 실무 경험과 주말 자유시간을 통한 문화 체험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이수자에게는 약 5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이 제공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존에 캘리포니아 단기연수와 뉴질랜드 글로벌 현장학습을 수료한 선배 재학생들의 생생한 후기도 함께 전달되었다. 수료자들은 미국 대학 연수를 통한 학문적 성장과 뉴질랜드 현장 학습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으며, 글로벌 감각과 간호사로서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간호학과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전문 간호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연수 및 현장 실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전문가와 함께 배우는 중환자간호

16기 학생기자 윤수민

〈4학년 70명 참여, 중환자간호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지난 6월 29일 4학년 재학생 중 신청자 70명을 대상으로 '중환자간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중환자간호에 필요한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임상에서 활용되는 장비와 간호술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교육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와 정맥주사팀 간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임상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인공호흡기 사용법, 주요 약물 용량계산, 인퓨전 펌프 작동법 실습, 정맥주사 실습, 카테터 관리 등 중환자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과 술기를 배우며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다양한 장비와 술기를 직접 체험〉

인공호흡기와 인퓨전 펌프 등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장비의 사용방법을 익히고, 주요 약물의 용량을 계산하며 약물 투여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확인했다. 또한 인간대상 정맥주사와 카테터 관리 실습을 통해 중환자 간호에서 요구되는 세부적인 술기 수행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특히 현직 중환자실 및 정맥주사팀 간호사가 교육에 참여해 각 술기와 장비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임상 상황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임상을 준비하는 실무 중심 교육〉

중환자간호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실무 역량이 요구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중환자간호에 필요한 장비와 술기를 직접 다뤄보며 임상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간호술기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임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전문 간호사로서 갖춰야 할 실무 역량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기회가 됐다.

간호학과는 앞으로도 임상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현장에 자신 있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실습과 평가로 높이는 임상 술기 자신감

16기 학생기자 윤수인

〈‘핵심실기 역량강화 프로그램(심화)’ 운영〉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조형관 간호학과 실습실에서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핵심실기 역량강화 프로그램(심화)’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임상현장에 나가기 전 주요 간호술기를 직접 수행하고 자신의 술기 역량을 점검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4일간 진행됐으며, 임상에서 요구되는 주요 술기과정 중심으로 학생들은 교육과 평가에 참여하였다. 각 술기의 수행 절차를 직접 연습하고 평가받는 과정을 통해 정확한 술기 방법을 익히고, 실제 간호 상황에서 필요한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복 실습으로 술기 수행 능력 점검〉

학생들은 술기과정을 직접 자신이 수행하면서 세부적인 절차와 수행 방법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강점을 알아보고 보완할 부분을 점검했다. 반복적인 수행과 평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술기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정확성과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순서를 익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수행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받으며 자신의 실무 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수행 역량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며 졸업 후 환자를 직접 간호하게 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예비 간호사의 임상 적응력 향상〉

핵심실기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간호술기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하며 술기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간호학과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임상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실습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졸업 후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2026년 6월 22일 오후 6:20

2026 KALS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16기 학생기자 정지승

Q. 2026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란?

백석대학교 간호학과는 졸업 후 임상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예비 간호사들의 **실무 중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실무 기술 습득,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그리고 현장 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둔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간호학과 4학년 예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병원 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임상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KALS(한국전문심폐소생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였다.

Q. KALS(한국전문심폐소생술)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KALS(Korean Advanced Life Support) 교육은 병원 및 응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환자의 고급 처치 기술과 팀 기반 응급 대응 능력**을 다루는 전문 교육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단순 가슴압박에 그치지 않고, 심폐소생술 관련 이론 학습부터 시작하여 기도 확보, 전문기도 삽관 보조, 제세동기(AED) 운영, 응급 약물 투여 등 실질적인 술기 훈련을 포함한다. 나아가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 비기술적 역량까지 다루는 고밀도 집중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 및 평가 이수 시 공식 'KALS-Provider' 자격증이 부여된다.

Q. 이번 2026 KALS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및 기여 성과는?

이번 2026학년도 KALS 프로그램은 임상 진출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병원 내 심정지 상황 시 필요한 핵심 지식과 응급처치 기술을 완벽히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기반의 실무 훈련**과 엄격한 실기 시험을 거치며 응급 상황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 구급 상황 대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병원 현장에서 일하게 될 예비 간호사로서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백석대학교 간호학과는 교내 체계적인 취업 지원 및 실습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KALS를 비롯한 다양한 실무 중심 특성화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임상 현장이 요구하는 우수 간호 인재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주대병원 단기 현장실습

16기 학생기자 이승현

지난 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병원 단기 현장실습'이 진행되었다. 이번 실습에 참여한 여러 대학 중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질문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간호본부의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 채용 절차를 비롯해 복지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병원 투어와 선배 간호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단기 현장실습이 마무리되었다. 특히 직접 병원에서 채용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간호사로서 갖춰야 할 역량과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습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단기 현장실습은 막연했던 목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꾸준히 성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경험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방향만 찾기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으며, 목표를 향해 꾸준히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림대학교 감염관리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15기 학생기자 김민지

지난 2026년 1월 13일(수)과 14일(목) 양일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별관 5층 문화홀에서 '2025학년도 제2차 간호현장교류 단기실습 프로그램(감염관리 이론 및 실습)'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단기실습은 임상 현장에서 필수적인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실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회차당 40명씩 총 80명의 간호학과 재학생이 참여했다.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감염예방 기본이자 핵심인 '올바른 손위생 이론'과 함께 글리터버그(GlitterBug) 기기를 활용한 '손위생 실습'으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형광 로션과 자외선 램프를 통해 자신의 손 씻기 습관과 취약 부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철저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어 실무에 직결되는 '감염예방을 위한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탈의 이론 및 실습'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AP 가운 및 N95 마스크 착용법부터 고위험 감염병 대응을 위한 Level D 보호구 착용·탈의 설명 및 실습까지 이루어져, 병원 내 다양한 감염 위험 상황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함양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론으로만 접했던 감염관리 지침을 전문 의료 환경에서 직접 몸으로 익힐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단기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향후 임상실습과 간호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탄탄히 다졌다.

최신 질환정보

16기 학생기자 김서영

1. 냉방병

36℃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더위를 피해 에어컨이 켜진 실내로 들어서지만 지나치게 큰 실내외 온도 차가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두통과 피로감, 콧물, 기침 등을 유발하는 냉방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냉방병은 더운 여름철 환기가 잘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이 지속될 때 나타나는 가벼운 감기, 몸살, 권태감 등의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특정 질병 하나를 가리키기보다는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여러 질환군을 묶어서 부르는 증후군의 일종이다. 냉방병의 증상으로는 콧물, 재채기, 목 통증, 복부 불편감, 설사 등이 있다. 냉방병은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지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급격한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 냉방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는 콧물, 소화불량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 레지오넬라증과의 감별을 위해 가래 검사, 소변 또는 혈청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 차를 **5~8℃ 이내**로 유지하고, 실내 온도는 22~26℃ 사이로 조절하며 적정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찬 음식이나 찬물을 너무 자주 마시지 않고, 얇은 겉옷을 준비해 체온을 보호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 냉방병 증상



2. 레지오넬라증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 속(*Legionella* spp.)에 의한 감염증이다. 이 질환은 임상 증상에는 따라 레지오넬라 폐렴과 폰티악 열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레지오넬라 폐렴은 발열, 오한, 마른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흉부 X선상 폐렴 소견이 관찰된다. 폰티악 열은 2~5일간 지속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권태감, 근육통, 마른기침, 콧물, 인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폐렴 증상은 없다. 레지오넬라증의 주요 원인은 레지오넬라균으로, 이는 냉각탑, 샤워기, 가습기, 온천 등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시설의 **오염된 물속에 존재하는 균들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될 시 전파된다. 하지만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다. 질환의 진단은 혈액, 폐 조직 등의 검체에서 직접 균을 배양하거나 소변 내 특이 항원을 검출함으로써 진단한다. 레지오넬라증의 치료는 마크로라이드계, 퀴놀론계, 테트라사이클린 등의 **항생제를 사용**하며,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 약 14일에서 21일 정도 투여한다. 레지오넬라증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냉각탑, 저수탱크, 가습기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여 균의 증식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병원 내에서 호흡기 사용 기구나 물에 대해 멸균수를 사용하거나 소독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뉴질랜드 간호현장실습, 선배에게 듣는 생생한 이야기

16기 학생기자 김주아

1. 4주간 진행된 글로벌 간호현장실습의 일정과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 1주차에는 뉴질랜드 곳곳에 방문하는 시간과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실습 전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뉴질랜드 간호사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으며, 뉴질랜드 간호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후 실습 장소에 미리 방문하여 선생님들께 미리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간단한 OT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4주차부터 실습은 총 2곳으로 나눠 5명씩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Lynton Lodge Hospital에서 실습했습니다. 실습은 6시간 30분 진행되었고 쉬는 시간은 30분씩 2번, 총 1시간 쉬었습니다. 8시 출근 후 가장 먼저 간호사들과 함께 인수인계를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환자분들의 샤워, 베드 메이킹, 의복 교체, 빗질 등 기본적인 간호를 도왔고, 연하곤란이 있으신 환자분들께는 1:1로 붙어 식사와 간식을 챙겨드렸습니다.

11시부터는 빙고 놀이나 풍선 치기, Van Trip처럼 환자분들의 소근육 활용을 돕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RN 지도하에 약물 준비 및 투여, Tracheostomy 관리 등 직접적인 간호 처치를 수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과 중간중간 직원들과 Tea Time을 가지며 직원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오후에는 RN. Su 선생님과 질의응답을 통해 뉴질랜드 간호 문화 및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 지식을 깊이 있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간호현장실습, 선배에게 듣는 생생한 이야기

16기 학생기자 김주아

2. 4주간 실습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RN의 지도 하에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의 실습은 주로 관찰 위주였던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약을 직접 준비해 투여해 보고 Tracheostomy관리까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간호를 제공해 보니, 나중에 임상에 나가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간호를 수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힘들었던 점을 꼽자면, 현지 간호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간호조무사와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뉴질랜드는 간호조무사의 개념이 따로 없어 간호사가 그 역할까지 함께 수행해야 했습니다. 업무 부담은 다소 컸지만, 한편으로는 환자와 더 가까이 소통하고 밀착 케어를 제공하면서 간호의 질이 훨씬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감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 이번 실습을 통해 간호사로서 새롭게 배우거나 느낀 점, 앞으로 글로벌 간호 현장 실습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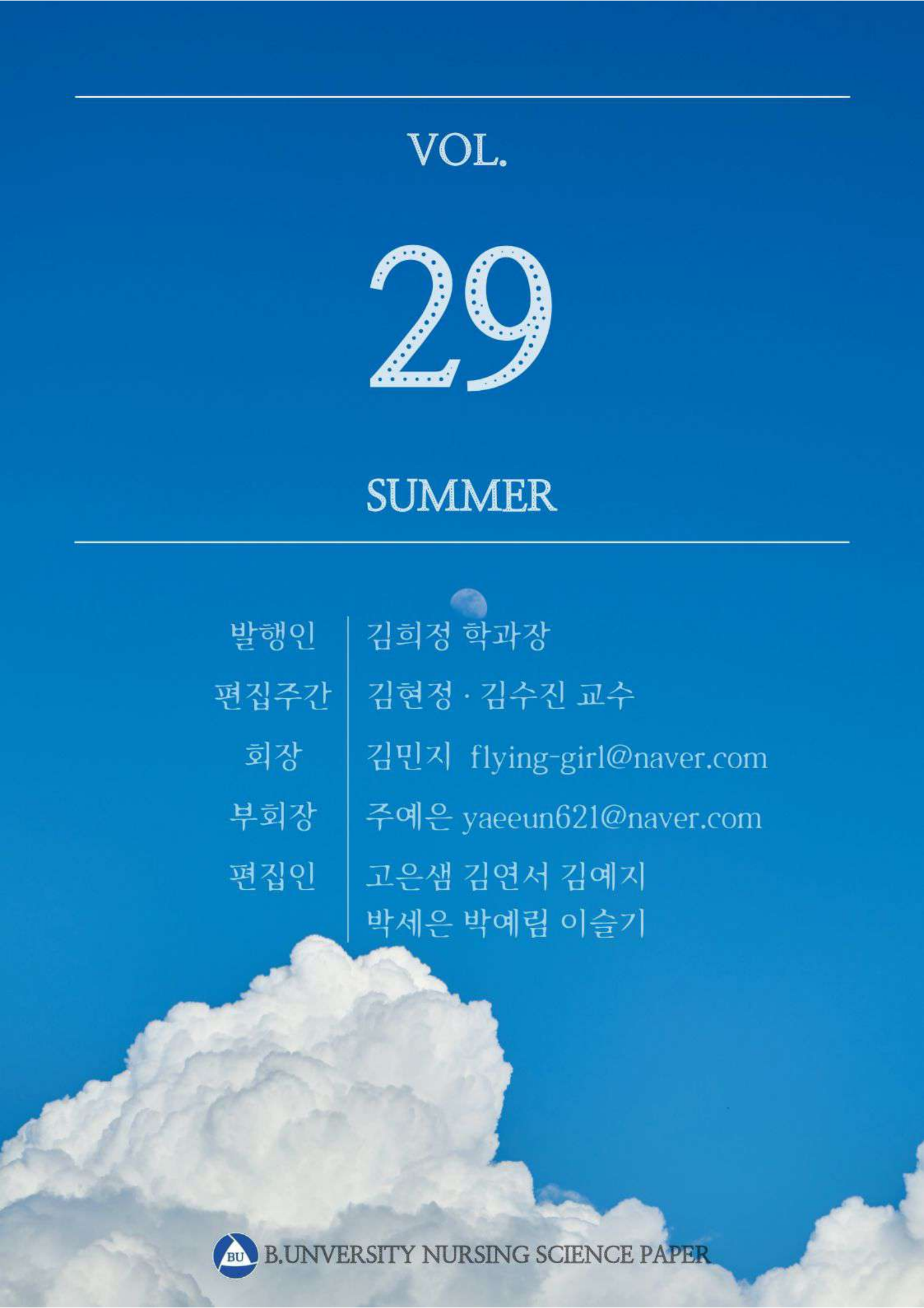
: 간호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역량을 펼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간호 역량이 더 넓은 세계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후배 여러분도 한국에서의 실습에만 그치지 않고, 뉴질랜드와 같이 해외 병원에서 직접 현장을 경험할 기회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백석대학교 간호학과를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이런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꼭 도전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VOL.

29

SUMMER



발행인	김희정 학과장
편집주간	김현정 · 김수진 교수
회장	김민지 flying-girl@naver.com
부회장	주예은 yaeeun621@naver.com
편집인	고은샘 김연서 김예지 박세은 박예림 이슬기

